



스위스 탐구 생활: 계절별 쉴트호른(Schilthorn) 사용법.

007 산에 뭐가 있길래?

누구나 여행하는 방식 말고

계절 맛 제대로 느끼는 쉴트호른 활용법

봄이면 알프스 꽃길 거닐고,

알프스 물에 발 담그고 자연주의 치료법 체험하고

여름이면 붉게 타는 노을 바라보며 맥주 한 잔

가을이면 오색 찬란한 숲 감상하며 아이거 북벽 걷고

겨울이면 제임스 본드처럼 스키 타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곧 떠날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여행지의 숨은 묘미를 하나씩 공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곧 다시 스위스를 여행하기를 기대하며, 그 여섯 번째로 쉴트호른을 소개한다. 여섯번째 007 영화인 “여왕 폐하 대작전(On Her Majesty Secret Service)” 로케이션으로 지금까지도 007 팬들의 성지순례가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어떤 장면이 촬영되었길래, 아직도 “007 산”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걸까?

스위스의 알프스 산악지대에 알레르기 연구소라는 정체불명의 기관이 들어선다. 세균실험과 세균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이곳의 정체를 알아차린 제임스 본드는 또 한 번 세계를 구한다. 실제로 영화에서 헬기를 타고 쉴트호른 정상, 피즈 글로리아(Piz Gloria) 봉우리 근처를 비행하며 알레르기 연구소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접어들어서는 눈사태 속에서 박진감 넘치는 스키 추격 장면으로 스릴 넘친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은 쉴트호른 정상에 올라, 융프라우(Jungfrau) 지역의 파노라마를 감상하고 다시 내려오는 단편적인 방문 위주로 쉴트호른을 찾고 있지만, 쉴트호른을 제대로 만나는 방법은 계절을 즐기는 여행을 하는 것이다.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꾸는 쉴트호른을 더 깊이 만나보자.

1. 봄에는 꽃길 하이킹

알멘드후벨(Allmendhubel) - 블루멘탈(Blumental) - 뮌렌(Mürren) - 김멜발트(Gimmelwald)

융프라우(Jungfrau), 뮌히(Mönch), 아이거(Eiger)를 배경으로 한 적절한 난이도의 하이킹 코스가 있다. 뮌렌 마을 중앙에 위치한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오르막 터널을 따라 오르면 알멘드후벨(Allmendhubel) 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뮌렌까지 연결되는 내리막 코스다. 알멘드후벨에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이 근처에서 꽃길이 시작된다. 먼저, 이 꽃길을 둘러보는 것으로 하이킹을 시작할 수 있다.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길로, 웅장한 알프스 봉우리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150종류가 넘는 알프스 야생화가 피어나 그 절정에 달한다. 알펜로즈(Alpine Roses)와 에델바이스(Edelweiss)를 볼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이때다. 단, 알프스의 봄은 6월이나 되어서 시작되기 때문에, 알멘드후벨로 향하는 푸니쿨러는 6월 10일 이후에 운행된다.

알멘드후벨에서 꽃길 산책을 마치면 발을 쉬어갈 시간이다. 이곳에는 냉수 치료법인 크나이프(Kneipp)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알프스의 자연주의 치료법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후 위렌으로 돌아가거나, 본격적인 하이킹에 나서볼 수 있다. 위렌을 거쳐 김멜발트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알멘드후벨에서 시작하는 하이킹로는 블루멘탈 계곡을 지나 위렌까지 이어진다. 중간에는 펜션 손넨베르그(Pension Sonnenberg)나 수펜알프(Suppenalp)같은 산장 레스토랑이 몇 군데 있어 잠시 쉬어가며 소박하지만 맛있는 점심이나 간식을 즐겨도 좋다. 위렌까지 약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위렌에서 김멜발트까지 역시 약 45 분 정도 소요되는데, 코스 대부분이 포장된 내리막길이다. 우천 시에도 길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길이지만 경치만큼은 빼어나 누구에게든 추천할 수 있다. 코스 중간 중간에 융프라우, 뮌히, 아이거 봉우리를 볼 수 있는 것도 이 길의 매력이다. 유명 코스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명봉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코스로도 유명하다. 김멜발트 역에 도착하면 위렌으로 돌아가거나 슈테헬베르크(Stechelberg)까지 갈 수 있는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다.

구간별 정보

알멘드후벨 꽃길

코스 길이 400m
 소요 시간 20 분
 난이도 쉬움

알멘드후벨 - 블루멘탈 - 위렌

코스 길이 2.5 km
 소요 시간 1.5 시간
 난이도 쉬움 - 중간

위렌 - 김멜발트

코스 길이 2.3 km
 소요 시간 45 분
 난이도 쉬움

2. 여름에는 정상에 붉은 노을과 함께 맥주 한 잔

해발 2,970m 에서 200 개가 넘는 봉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근사한 파노라마 전망이 있는 쉴트호른 정상에 오르면 세 개의 알프스 명봉인 아이거, 뮌히, 융프라우가 바로 눈 앞에 펼쳐지고, 알프스 봉우리들이 장관을 연출한다. 이런 풍경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특히, 쉴트호른 정상은 알프스 봉우리 위로 그려지는 석양으로 유명하다. 붉은 노을과 함께 춤추는 알프스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늦은 오후에 쉴트호른에 올라, 석양이 내려앉을 때 즈음 정상에 있는 360 도 회전 레스토랑, 피츠 글로리아(Piz Gloria)에 앉아서 영화 한 편을 감상하듯 드라마틱한 자연의 색깔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알프스에서 채취해 말린 히비스커스 티 한잔이나, 로컬 생맥주 한 잔을 마시며 알프스 전체가 나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맞볼 수 있다. 007 브런치로 유명한 피츠 글로리아에서 007 버거를 맛보아도 좋다. 스위스 쇠고기로 만든 파티에 신선한 채소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햄버거 번에 찍힌 007 글씨가 포토제닉하다. 곁들인 감자튀김도 훌륭하다.

여름에는 소름 돋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중간역인 비르크(Birg) 역에는 스릴 워크가 마련되어 있는데, 절벽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디디며 짜릿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다. 스릴 워크 코스 중 약 20m 구간은 유리 바닥으로 만들어져 있어, 아찔한 알프스 절벽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9m



구간은 로프로 만들어진 다리이고, 8m 구간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동심 가득한 어른들을 위한 기어서 통과하는 터널 구간으로 만들어져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알프스를 둘러볼 수 있다. 전 구간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코스가 이어지다가 다시 비르크 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3. 가을이면 아이거 북벽 트레일(Eiger North Face Trail) 하이킹 알멘드후벨(Allmendhubel) – 블루멘탈(Blumental) – 쉴트알프(Schiltalp) – 슈필보덴알프(Spielbodenalp) – 뤼렌(Mürren)

아이거 북면을 지칭하는 노스 페이스를 등반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등반 코스 중 하나로 꼽히던 시절이 있었다. 현대적인 장비 하나 없이 꾸준히 산을 올랐던 초기 알피니스트들의 용기와 끈기를 숭배하고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지금은 전문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튼튼한 등산화만 신으면 별문제 없다. 짙은 가을 하늘 배경으로 펼쳐진 베르네제 알프스 파노라마와 아이거 북벽의 장관을 만날 수 있다. 숲은 가을빛으로 가득하다.

알피니스트 선구자들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코스로, 알멘드후벨(Allmendhubel)에서 시작하여 뤼렌(Mürren)을 경유하여 슈필보덴알프(Spielbodenalp)까지 2 시간 반 정도 이어진다. 12 개의 안내판에서는 그 당시 사용되었던 장비, 등반 루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알멘드후벨과 쉴트알프 사이에는 잘 닦인 트레일이 놓여 있는데, 다채로운 야생화가 피어난 산등성이와 초록 들판을 지난다. 쉴트알프에서 뤼렌으로 돌아오는 길 역시 포장로다.

4. 겨울에는 제임스 본드 스키

쉴트호른 정상에서 뤼렌까지 이어지는 스키장은 융프라우(Jungfrau) 지역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스키 지역으로 손꼽힌다. 곳곳에는 깎아지른 경사면이 도사리고 있고, 길게 펼쳐진 다운힐은 스키의 맛을 더욱 고조시킨다. 케이블카와 T 바를 비롯한 현대적이고 편리한 스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낭만적이면서도 웅장한 알프스 파노라마가 곳곳에 펼쳐져 있다. 해발고도 2,970m 에 위치한 쉴트호른 정상에서 시작되는 스키 슬로프는 장장 54km 에 달한다.

쉴트호른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비르크(2676m) 케이블카역이 나온다. 이곳 레스토랑에서 따끈하게 몸을 녹이기 좋다. 뤼렌까지 계속하여 스키를 탈 예정이 아니라면 비르크에서 시작되어 오베레 후벨(Obere Hubel: 2439m)까지 이어지는 슬로프에서 스키를 즐기기도 좋다. 스키 리프트를 이용하여 비르크까지 왕복할 수 있다. 오베레 후벨 근처에는 쉴트호른히ütte(Schilthornhütte)라는 산장 레스토랑이 있다.

뤼렌 근처에는 보더들을 위한 편파크가 조성되어 있어 아찔한 스노우보드를 즐길 수 있다.

전나무 숲과 살레 마을을 지나는 낭만적인 눈썰매도 즐겨볼 수 있다. 스키를 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눈썰매도 신나는 겨울 체험이 되어 준다. 뤼렌에서 퓨니쿨러로 올라갈 수 있는 알멘드후벨에서 썰매를 타고 뤼렌까지 신나게 내려갈 수 있다. 전나무 숲과 아기자기한 살레 마을을 지나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눈썰매를 체험할 수 있다.

피프 글로리아 레스토랑에서는 각종 치즈 모듬이나 햄 모듬을 와인과 한잔하기에 좋다. 오스트리아식 돈가스 요리인 슈니첼(Schnitzel)이나 소시지와 뢰슈티(Rösti)도 맛있다. 알멘드후벨역의



레스토랑에서는 보다 알프스다운 요리를 즐길 수 있다. 풍뎉나 뿔슈티, 라클렛은 물론, 알프스 목동들이 먹던 치즈 마카로니는 애플 소스를 곁들여 더욱 특별하다. 무엇보다 스키를 타다가 으슬으슬해질 때 즈음 향신료를 넣고 데워 만든 글뤼바인(Glühwein)을 한 잔 마셔보도록 하자. 스위스 겨울에서 빠질 수 없는 따뜻한 체험이 되어준다.

샬트호른 찾아가기

인터라켄 오스트(Interlaken Ost)에서 기차로 라우터브룬넨(Lauterbrunnen)까지 간 뒤, 포스트 버스를 이용해 슈테헬베르크(Stechelberg)로 간다. 케이블카를 타면 위렌을 거쳐 샬트호른으로 갈 수 있다.

케이블카 요금

위렌에서 샬트호른까지의 케이블카 왕복 요금은 85.60이며,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50% 할인된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위렌까지의 기차 및 버스 요금은 무료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